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과잉된 공감과 자기부정의 위험한 관계

이렇게 한쪽에 대한 공감의 과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적'에 대한 비인간적인 수단과 행위는 내부적인 정당성을 얻는다. 특히 가장 위험한 공감 감정은 구체적 위력을 가진 특정 대상에 대한 동일시의 공감이다. 이러한 공감은 맹목적으로 절대성과 신격화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 대상이 신격화되는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추종과 복종 뿐이다. 추종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집단의 선(善)을 위배하고 악(惡)의 편에 서는 것임을 먼저 학습한다. 이렇게 해서 추종자들은 쉽게 신격화된 대상을 위한 수단이 되기를 자처한다.

불과 몇 달 전의 사건이다. 인도 출신의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1947-)가 2022년 8월 12일에 뉴욕의 한 행사 참석하는 도중에 한 청년으로부터 매우 잔인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작가는 1988년에 '악마의 시'라는 작품을 발표한 후 10년을 공개적인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당시의 이란 통치자 호메이니가 1989년에 사형을 선고하고 살해를 지시하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무슬림들은 이슬람 종교 관련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넘어 심지어 폭동도 불사한 것이다. 불가침의 신성에 대한 작가의 '불경함'에 대해서 사실상 살해 지시가 내려지고, 현상금이 걸렸으며, 작품의 번역자가 실제로 살해를 당하기까지 했다. 절대적 권력자 호메이니의 사후에야 사형 선고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고 작가는 비로소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사실 소설은 영국의 인도 이민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인도인들이 이민 와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며, 동시에 영국인들이 낮은 이민자들과 겪는 갈등을 다룬다. 그런데 작가는 인도 이민자들처럼 초기 이슬람교에서도 기존 아랍인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슬람 이전의 신앙을 일부 수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지점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말처럼 협박과 증오를 퍼붓는 사람들 중 과연 몇이나 제대로 작품을 읽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지금 작가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손 하나를 쓸 수 없게 되었다.

루슈디의 그 '불경'한 작품이 세상에 나온 지 무려 34년이 지난 뒤, 미국에 사는 24살 청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작가를 살해하려 한 것인가. 지독한 맹신은 우선 맹목적 공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공감하지 않는 자는 '신성을 모독한 자'이다. 그리고 편향된 공감과 확신은 다른 쪽에 대한 합리적 인지와 이성의 힘을 통한 감정 표현의 길을 봉쇄한다. 여기에 과잉된 공감의 독이 깊게 스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슈디를 지지하며 집회에 나섰다. 이는 작가 한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의미하는 가치와 권리에 대한 공감 표현이다. 누가 감히 세상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눈과 입을 가릴 수 있으며, 굴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공감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공감의 외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필의 향기

그 절의 개들



김향남
수필가

로 향하는 완만한 등산로와 그 끝의 툇티진 시야, 전 년씩이나 변함없이 서 있는 묵묵한 돌 보살과 흙으로 빛은 각양각색의 나한들, 스님의 차 한 잔과 천진한 견공들. 금성산성에서 연동사로 잇닿은 저 모든 것들이어서 오라고 부르는 거 같았다. 그중에 견공 일가족은 더욱 섰었다. 어찌 그리도 예쁘지, 귀여워 미칠 정도로 양증맞은 강아지들과 물고 뜯고 아무리 귀찮게 해도 제 몫 기꺼이 내어놓는 어미 개의 현신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었다.

저번처럼 산성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절집에 들르도록 하자. 계획은 그러했으나 산성에 오르는 건 중간까지만 하고, 노천법당 보살님 뵈우는 것도 신속히 마치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곧장 요사채 쪽으로 내려왔다. 그쯤 어디에서 녀석들을 마주치려니 싫어서였다. 그러나 웬걸, 아무리 살펴도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햇볕 따스하고 날씨도 좋았건만, 서둘러 내려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척도 없는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스님에게 물으니, 강아지들은 그새 다 입양되어 떠났고 두 놈은 아마도 탁발하러 갔을 거란다. 저 아래 야영장이 있는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거기 가서 놀다 오거나, 등산객들을 따라 산성까지 갔다가 어둑해지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하 참,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하기가 다시 만나자고 손가락 건 것도 아닌데 기다려줄 리도 만무하지.

스님과 차 한 잔을 마시며 또 개들 이야기로 돌아왔다. 탁발 나간 개들의 이름은 '절순이'(절의 순이)와 '연백이'(연동사 백구)인데, 입양 보낸 강아지 다섯 마리는 모두 '절순이'의 자식들이고 '연백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연백이' 역시 암컷이고 나이드 동갑인데 '절순이'는 새끼를 벌써 두 번이나 낳았지만, '연백이'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제 자식인 양 열마나 지극정성인지, 저 아래 야영장 손님들에게 소시지까지 탁발해 온 적도 있다.

옆에 있던 공양부 보살이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연백이'를 만났는데 입에 커다란 소시지 하나를 뽕뽕 물고 있었다. 야영장 근처였는데 거기서 얻은 모양이었다. 잘못하다 들킨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연백이'에게 "연백아, 너는 절에 살면서 그런 걸 먹으면 어떡하냐. 너 딱 걸렸어. 스님한테 혼 날아겠다" 하고 야단치는 적을 했다. 그 래도 냅금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데, 양쪽 입간판 침이 줄줄 흘렀다. 나중에 봤더니 물고 온 그 소시지를 새끼들한테 먹이고 있었다. "세상에, 저도 엄청나게 먹고 싶었을 텐데 그 걸 참고 오다니!"

와야, 몽글한 마음이 울려 솟았다. 모두의 표정에도 감동의 물결이 생겼다. 거기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생명의 송고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모성을 품은 것들의 애뜻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옆에 있으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 텐데, 녀석들은 언제 돌아올지...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했다. 기약 없이 있을 수도 없어 집으로 오는데, 비에 젖은 생쥐뿔의 개 두 마리가 나타났다. 절집과 야영장 중간쯤, 스님 말씀대로 탁발 나간 '절순이'와 '연백이'가 귀환하는 중이었다. 갑작스레 내린 비에 야영장 사람들도 바빠 절수했을 것이고, 그들도 일찍 귀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명작 속의 주인공을 만난 듯 화답할 만가웠다.

기고

아리랑과 옥일기



김복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장

도 못 가서 발병한다"를 비롯하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의 정선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랑이 님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 주소'의 밀양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리랑이 님네 아리랑 응응을 아리랑이 님네'의 진도아리랑, 이외에도 독립군 아리랑, 땃목아리랑, 종두아리랑, 한글아리랑, 남도아리랑, 해주아리랑, 꿈의 아리랑, 연변아리랑 등 지역별, 시대별로 불리는 아리랑은 열 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 없다.

하지만 요즈음 시대의 흐름인지, 아리랑을 부를 기회나 자리가 줄어들었다. 여가 문화·놀이 문화가 바뀌고 모듬살이도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더 세월이 흐르면 민속 공연장에서도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 아리랑은 언제부터 불렀을까? '아리랑'의 유래가 ① '나는 사랑하는님을 떠난다'이다. ②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때 고생하던 사람들이 반가운 말보다 괴로운 말만 들으니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눔'이다. ③ 밀양 영남루 아랑'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노래다. ④ 박혁거세의 아내 알영 부인을 찬미했다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

또 아리(亞里)는 '하늘나라 마을'이며 '아름답다, 곱다, 크다'의 뜻이다. 우리 말 아리따운(아리+다운)이 그 흔적이다. 몽골어의 아리(亞里)는 '성스럽다, 깨끗하다'의 뜻이다. '랑'은 '남궁, 남'이니 아리랑은 '성스

러운 하느님'이다. 그리고 '아리리요'는 '알아라'이니 '성스러운 하느님을 알자, 잘 모시자'는 말이라고도 한다.

우리 한(韓) 민족은 환인, 환웅, 단군 시대로 이어지는 일만 년의 역사를 가진 천손족, 배달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 믿음은 일제강점기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민족을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또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하느님을 뜻하는 언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리랑은 환웅 시대인 배달국(B.C 3897-2333년) 시절부터 단군 시대인 고조선(B.C 2333-238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어찌 됐든 괴로울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불렀던 노래, 아리랑은 오랜 세월 전해오는 민요를 넘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애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입이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는 이별의 아픔이 서린 '해운의 고개'가 아니다. 하느님을, 조국을, 조상을, 고향을, 사랑하는 임을, 자신을 잊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희망의 고개'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육일기에 경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육일기는 일제 식민지 침략의 상징이자 전범기이다. 그 육일기에 경례하 하는데, 노래 선구자를 부르는 게 어찌 부끄럽고 나아가서 함께 일본 군가도 부르지 않을까 싫어서다.

社說

첫 설명회·특별법 공조...군 공항 이전 전환점으로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이면서도 그동안 주민 반발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함평군에서 개최됐다. 또한 광주시와 대 구시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25일 함평군 엑스포공원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이 성사되면 최소 4508억 원의 지원금을 투입해 생활 기반 시설과 복지 시설, 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대 기피 요인인 소음을 줄이기 위해 부지를 현 군 공항보다 1.4배 넓은 1166만㎡로 조성하고 완충 지역 363만㎡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질의응답에서는 반대 측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함평군은 향후 읍면 순회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하여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주도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재정 투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사회간접자본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꽤 막혀 있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첫 주민 설명회는 무조건적 반대를 넘어 득실을 따져 보는 공론화의 물결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다른 지역으로도 논의 절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 공조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서민 울리는 무자본 전세 사기 뿌리 뽑아야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빼앗은 전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갭(gap)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적 극적인 단속과 함께 주의를 요망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6개월 간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벌여 여덟 건의 관련자 79명을 검거했다. 사기 피해액은 총 548억 원에 달한다. 구속된 50대 A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00여 채를 섭외해 매매 가격차를 한 후 임대료를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소개받아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대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만 208세대에 이르고 금액은 480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 세대의

임대차가 종료되면 피해 금액은 모두 10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무자본 전세 사기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다수 임차인이 전세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으로 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크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하는 보증보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피해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는 셈이어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 가운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무자본 전세 사기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현대사회를 일컬어 '평점 사회'라고 한다. 입시나 직무 평가 등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고전적인 평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일상을 떠난 가상의 공간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가 별점이나 점수 등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평가 대상이나 항목 또한 무한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보나 사진, 영상 같은 뉴스나 시각적 자료에서부터 음식 배달이 나 아르바이트 같은 서

비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평점이나 평가는 공개되는 특성상 입소문을 타고 평판과 같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평점 사회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온라인 터미널'이나 다름없는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돼 일반화되다시피 한 '피지탈'(phygital)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플랫폼의 영향과 맞물려 있다. 오프라인의 실제 공간과 온라인의 사이버 공간을 뜻하는 피지탈은 평가와 평점으로 일반

화된 4차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우리 사회는 잠시 멈추는 경험을 했다.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것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카카오톡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먹통 사태는 관련 앱과 연동된 메일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까지도 연쇄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같은 사태는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예다.

'평점사회'의 명망

이공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서 '디지털 폭식 사회'에서 플랫폼이 특성상 입소문을 타고 평판과 같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평점 사회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온라인 터미널'이나 다름없는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돼 일반화되다시피 한 '피지탈'(phygital)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플랫폼의 영향과 맞물려 있다. 오프라인의 실제 공간과 온라인의 사이버 공간을 뜻하는 피지탈은 평가와 평점으로 일반

화된 4차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우리 사회는 잠시 멈추는 경험을 했다.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것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카카오톡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먹통 사태는 관련 앱과 연동된 메일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까지도 연쇄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같은 사태는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예다.

이공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저서 '디지털 폭식 사회'에서 플랫폼이 특성상 입소문을 타고 평판과 같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평점 사회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온라인 터미널'이나 다름없는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사용돼 일반화되다시피 한 '피지탈'(phygital)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플랫폼의 영향과 맞물려 있다. 오프라인의 실제 공간과 온라인의 사이버 공간을 뜻하는 피지탈은 평가와 평점으로 일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